

방산육성이 국가안보의 礎石

새로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 선진국은 기술 패권주의에 의한 기술장벽 구축과 함께 약소국에 대한 무역개방 압력 등 자국의 이익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해 말 외환 위기 사태로 IMF 체제하에서 국민 모두가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방위산업 육성과 기반구축에 기여해 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영예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초 태동 이래 재래식 병기의 국산화와 함께 고도 정밀 병기의 생산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정밀기계공업과 중화학공업을 선도하며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이념적 대립구조가 해소되면서 안보의식의 해이와 일부계층에서 방위산업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경향은,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를 어렵게 하면서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 위축 등 방위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몇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주적 안보와 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한반도의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 군사적 대결 위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국방력의 건설은 우리의 절대절명의 과제이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이야말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방산업계는 국내 소요물량의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과 함께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기업이 발생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시기에 방산기반의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방위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부의 육성지원 의지가 절실할 때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전국민적인 지원의지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방산장비 및 부품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산선진국들은 자국의 방위산업유지를 위해 자국산 방산물자의 수출활동을 강화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위산업도 한정된 국내소요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고 해외시장으로 시야를 넓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 방산장비와 당당히 겨룰 수 있게 현대 무기체계기술의 고도화에 부응토록 국내 독자기술력의 배양은 물론 국가간의 협력연대를 통해 부족기술을 해결하면서, 대미 수출동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방산업계와 관련기관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기여해 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회는 업계의 여론 수렴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제반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실현한 바 있고, 방산업계의 현안 애로와 문제점 타개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본회는 침체된 방위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방산업계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 파악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내 방위산업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裴一成